

전남도, ‘유엔 기후주간’ 여수 유치 총력

도, 독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방문...유치 당위성 등 설명
MICE 인프라·기후위기대응 정책 등 우수...12월 개최국 발표

전남도가 2026년 개막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기후주간(Climat Week)’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여수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도 기후주간 행사는 아시아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여수는 다른 아시아 2개 도시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발표지 개최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도는 기후에너지부, 여수시와 함께 UNFCCC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에서 치열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박철주 전남도 국제관계대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방문단은 지난 1~2일 UNFCCC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의 본을 방문해 노우라 함라지 사무부총장과 만나 전남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주간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함라지 사무부총장은 “UNFCCC는 대한민국과 매우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왔다”며 “기후주간 개최지로서 전남도는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하며, 직접 찾아와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기후주간은 2021년 시작된 공식 국제 환경 행사로, 198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과 국제기구, NGO 관계자 등 수천명이 참여해 매년 열리는 당사국총회(COP30)의 공식 의제를 사전에 논의하는 자리다.

전남도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기후에너지부는 앞서 기후주간 국내 개최도시 공모에서 경기, 충북, 경남, 제

주 등 후보지들 중 여수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다.

여수는 여수세계박람회(2012년)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우수한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 인프라를 비롯, 전남도와 여수시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는 사무국 방문 전에도 국내외에서 다양한 유치활동을 펼쳤다. 전남도는 지난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 관련 행사에서 기후에너지부, 여수시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해 전남의 탄소중립 비전을 국제사회에 홍보했다. 또 김영록 지사의 친서를 사이먼 스티엘 UNFCCC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며 유치 열망을 과시했다.

UNFCCC는 12월 중 최종 개최국을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대한민국(여수)을 비롯한 아시아 3개국이 막판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유치가 확정되는 즉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실용성과 품격을 갖춘 회의장, 내실 있는 연계 프로그램, 편리하고 안전한 숙박·교통 대책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6년 기후주간의 대한민국 유치는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COP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전남의 열정과 역량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좋은 기회인 만큼, 반드시 유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심천심 공감 포럼 4일 여수시 호텔JCS여수에서 열린 전남농협 농심천심(農心天心) 공감 포럼 행사에서김영록 전남지사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에너지기업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

14개 기업 에너지워크 참가

전남도가 지역 에너지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지원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중앙아시아 에너지워크’를 개최한다.

에너지워크는 전남도가 지역 에너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기업 지원사업이다.

올해 행사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동신대학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공동 주관했으며 지역 내 태양광·소수력 발전 기업 등 14개 기업이 참여했다.

행사 이틀차인 지난 2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에너지워크에서는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와 재생에너지와 전력계통 분야 정책교류

와 기술협력, 시범사업 등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정책 우호 교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에너지정책 세미나에서는 키르기스스탄 경제부에서 지역에너지 균형을 위한 키르기스스탄의 역할을 소개하고, 전남테크노파크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남도 에너지정책을 발표해 큰 관심을 끌었다. 또 수출상담회를 통해 전남 12개 에너지 기업과 키르기스스탄 에너지부 관계자, 현지 바이어가 다수 참여해 기술 소개와 협력 모델을 논의하면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선 KTX ‘좌석 난’ 숨통 트인다

광주시, 변전소 개량 국비 100억 확보
내년 5월부터 ‘KTX-청룡’ 중련 운행

광주시의 숙원인 호남선 KTX 증편과 만성적인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인 전력 설비 개량 예산이 확보돼 호남고속철도 운행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속철도 호남선 KTX-청룡 증편을 위한 변전소 개량 사업비’ 100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이번 예산 확보는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호남선 증편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강력하게 피력해 얻어낸 성과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지난 9월 광주송정역에서 시민들과 증편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직접 만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확보된 예산은 차세대 고속열차인 ‘KTX-청룡’

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에 투입된다. KTX-청룡은 열차 두 대를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편성’ 시 기존 KTX-1보다 약 1.4배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이 때문에 현재 호남선의 전력 공급 용량으로는 운행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시운전 당시 정읍 노령변전소에서 과부하로 전력이 차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노령변전소 부분 개량이 완료되는 오는 2026년 5월부터는 KTX-청룡의 중련 운행이 가능해 수송 능력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KTX-청룡을 중련으로 운행할 경우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좌석은 1030석에 달한다.

이는 현재 주력인 KTX-산천 중련 편성(758석)보다 300석 가까이 많다..

국가철도공단은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2028년까지 노령(정읍)을 비롯해 부용(세종), 논산, 익산 등 호남고속선 내 4개 변전소의 변압기 용량 증설을 단계적으로 추진, 평택-오송 북북선화 사업 완료 전이라도 증편 기반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25
DEC
06
-
2026
JAN
04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운영안내

무료입장
12/24(수) - 12/31(수)
*휴관 12/29(월)

야간개장
12/24(수) - 12/26(금)
9:00 - 21:30 (21:00 입장마감)

전시

국립세종수목원 X 카카오프렌즈 특별전시
<MOVING GARDEN: 식물의 감각>

한국플랜테리어협회 협업 테라리움 전시
<REBORN: 다시 태어나는 숲>

제라늄전문협회 협업 제라늄 전시
<우린, 지금부터 봄>

문화행사

겨울 마술쇼: 12월의 마법
12/6(토) 14:00, 12/13(토) 14:00

교과서 음악여행3
12/20(토) 14:00

크리스마스 뮤지컬 콘서트
12/24(수) 19:00, 12/25(목) 14:00

MERRY
RED!

지방정가 라운지

경영평가 ‘다’ 등급 기업 성과개선 지원 촉구

최무경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가 경영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전남도 출연기관의 성과개선을 요구했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최무경(민주·여수4) 의원은 “전남관광재단과 남도장터가 성과평가에서 ‘다’ 등급을 받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예산을 투입해 기관이 제 역할을 하고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출연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해 운영비와 기관 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전남도 등급(가-마)에 따라 운영비 조정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평가에서 전남관광재단·한국학호남진흥원·남도장터는 ‘다’ 등급을 받았다.



최무경 의원은 “관광재단은 전남의 관광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핵심 기관이고, 남도장터는 지역 농수산물 유통과 판로 확대를 책임지는 플랫폼이다”며 “이런 기관들이 ‘다’ 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전남도와 기관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반영해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전남도가 출연기관을 진정한 파트너로 보고 적극적으로 성과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전남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관광재단과 남도장터가 반드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며 “내년에는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도민에게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